



[폭풍전야 한진그룹] 국민연금-KCGI 주주행동주의 시동 한진칼에 경영참여 행사 04



Life

[바이오] 토종신약 R&D 결실 릴레이 '나보타'가 스타트 L2



‘M-밸리 포럼’ 구성... 마곡단지 R&D 활성화 머리 맞댄다

발전 방향 논의하는 소통의 장 구성 의제 상정해 반기별로 포럼 개최 특강·전문가 토의 등 프로그램도 지역밀착형 실증환경 조성할 것

마곡산업단지의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입주기업과 전문가, 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활동하는 소통의 장인 ‘M-밸리 포럼’을 구성해 운영한다.

M-밸리 포럼은 마곡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중점 해결과제, 핵심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민·관 거버넌스다. 민간에서는 M-밸리자문단,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참여한다. 공공에서는 정책심의위원회, 발전기금위원회, 강서구, 중앙정부, 마곡유관기관이 힘을 보탠다.

M-밸리 포럼 구성 내용



민간	M-밸리 자문단	단지운영 및 기업지원, 신기술 자문	40명
	입주기업체협의회	입주기업 간 의사 및 정보 교환	34명
공공	정책심의위원회	마곡산업단지 주요 정책사항 심의	14명
	발전기금위원회	마곡산업단지 미래 발전기금 조성·운영	7명
	강서구	운영 및 제도적 개선 등 행정지원	5명
	중앙정부	제도개선 및 정책정보·의견 교환	5명
	마곡 유관기관	마곡산업단지 개발 및 전략 실행	5명

자료/서울시

M-밸리 자문단은 단지운영 및 기업지원, 신기술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입주기업 간 의사·정보 교환을 돕는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마곡산업단지의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한다. 발전기금위원회는 마곡산업단지 미래 발전 기금을 조성해 운영한다. 강서구는 운영 및 제도적 개선 등 행정 지원을 한다. 중앙정부는 제도 개선, 정책정보·

의견 교환 역할을 담당한다. 마곡 유관기관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전략을 실행한다.

포럼은 반기별로(연 4회) 운영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발굴된 의제를 상정해 정기 개최된다. 현안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개최된다. 또 마곡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특강, 세미나·컨퍼런스, 현장방문, 전문가 토의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산업용지 분양 마무리 단계에서 혁신 주체 간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M-밸리 포럼을 구성하게 됐다”며 “국내외 R&D 연구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등 정보 교환의 장이 되도록 소통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마곡지구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시티는 스마

트 인프라와 융복합 기술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다. 이를 위해 시는 마곡지구에 공공 Wi-Fi 존 22곳을 추가로 구축한다. 범죄 취약 지역에서는 CCTV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해 대응한다.

아울러 시는 소셜 벤처 기업이 참여하는 스마트 리빙랩을 구축해 운영한다. 스마트 리빙랩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도시문제를 발굴,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해결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우선 시는 교통, 환경, 보안 등의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경쟁 공모를 실시한다. 이후 소셜 벤처기업과 마곡지구 입주기업 연구개발의 협업을 지원, 개발된 기술·서비스의 지속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지역밀착형 실증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양행순차로 교통 위반 단속하는 경찰

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 소속 경찰들이 양행순차에 탑승해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택시 기본요금 16일부터 3800원으로 인상

기본요금 3000원→3800원 심야 할증 요금 1000원 올라

오는 16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16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18.6% 인상된다고 6일 밝혔다. 기본요금은 800원, 심야 요금은 1000원 올랐다.

노사민정정 협의체,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 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정된 택시요금은 16일 새벽 4시부터 적용된다.

심야할증적용 시간은 오전 0~4시로 이전과 동일하다. 심야요금은 1000원 올라 4600원부터 시작한다. 거리요금은 132m 당 100원(10m 축소),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대형·모범택시는 기존보다 1500원 인상된 6500원으로 확정됐다. 이 경우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으로 13m 줄었고,

서울 택시요금 인상 전·후

중형 택시 기준

	기본요금	시간요금	거리요금	심야할증* 기본요금·거리
현재	3,000원	100원 당 35초	100원 당 142m	3,600원·2km
조정	3,800원	100원 당 31초	100원 당 132m	4,600원·2km

자료/서울시

*자정~익일 04시



시간 요금은 36초당 200원으로 3초 축소됐다.

조정된 요금은 승객 탑승(미터기 작동)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등 조정요령에 따라 심야 할증 요금의 10원 단위는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예를 들어 요금미터기에 4040원이 나오면 4000원을, 4050원이 뜨면 4100원을 지불하면 된다. 택시 운전자가 미터기의 지불 버튼을 누르면 반올림한 금액이 자동 표출된다.

시는 16일부터 보름동안 7만여대 서울

택시 요금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 시민 혼란을 막기 위해 모든 택시 차량 내부에 요금조건표를 부착한다.

시는 요금미터기 개정과 주행 검사가 완료되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254개 택시사업자와 협약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승차 거부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택시 공급 확대 등 택시 승차 거부 근절대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일자리창출·사회적 기업 입찰 우대

일반용역 입찰에 가산점 부여

경기도는 도의 입찰, 시설관리, 행사 등 일반용역 입찰에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일자리창출 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기준은 시·군을 포함한 경기도가 추진하는 일반용역 입찰 때 낙찰자 결정에 사용하는 규정이다.

도는 개정안에서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1.25점, ‘남여 고용 평등 우수기업’과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2.0점,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2.0점 등의 가산점을 신설했다.

또 장애인 기업의 신인도 가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기업’의 가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신인도 가점을 최대 2.0점까지 확대하고,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에 가점 2.5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경기도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경기도청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신인도 가점 최대 2점, 최근 1년 내 정규직 전환 이행 기업도 가점 1.5점을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이 개정안으로 취약계층 고용 증대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인도 가점은 일반용역 적격심사 때 해당 용역 수행능력평가 배점 한도 범위 안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용역 적격심사는 통상 이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등을 심사하는 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해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신인도 가점은 수행능력평가 점수 산정에 영향을 준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한강이 숲으로... 나무 8만4000그루 심는다

한강공원 6곳에 한강숲 조성사업 3가지 모델로 구분, 미세먼지 저감

한강이 울창한 숲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올해 이촌한강공원 등 6곳에 8만4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울창한 숲을 만드는 한강숲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한강숲 조성사업은 한강의 숲을 기능별로 3가지 모델(완충숲, 이용숲, 생태숲)로 구분, 각 위치의 특성에 맞는 숲으로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강숲을 조성해왔다. 이를 통해 완충숲 17

만5773주, 이용숲19만4707주, 생태숲 25만8015주로 총 62만8455주를 식재했다.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수목이 미세먼지를 붙잡아서 농도를 낮춰줌으로써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한강숲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도로변 먼지와 분진을 막기 위해 완충지대에 먼지 흡착능력이 뛰어난 수종을 집중적으로 심는다.

이촌한강공원에는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인근에 기존 대나무 녹지를 확장해 총 1만2500주의 수목을 식재한다. 사계절

푸른 녹음을 즐길 수 있는 뱃바람 숲을 꾸민다는 목표다. 광나루한강공원은 이팝나무 등 3만1200그루를 심어 꽃내음이 나는 자전거길 명소로 만들 예정이다.

이촌-망원한강공원을 잇는 5km 구간에는 미루나무 1000주를 식재해 산책로 길을 만든다. 반포한강공원은 세빛섬 주변으로 1만800주의 수목을 심어 나무 그늘 쉼터인 세빛 숲을 구성한다.

양화한강공원은 선유교 주변으로 1만300주의 나무를 식재해 올림픽 도로의 소음, 먼지 등 차폐를 위한 완충 녹지를 조성한다. 난지한강공원에는 야구장 주변으로 8200주의 그늘목을 만들 계획이다.

이번 한강숲 조성사업에는 총 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6월 말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